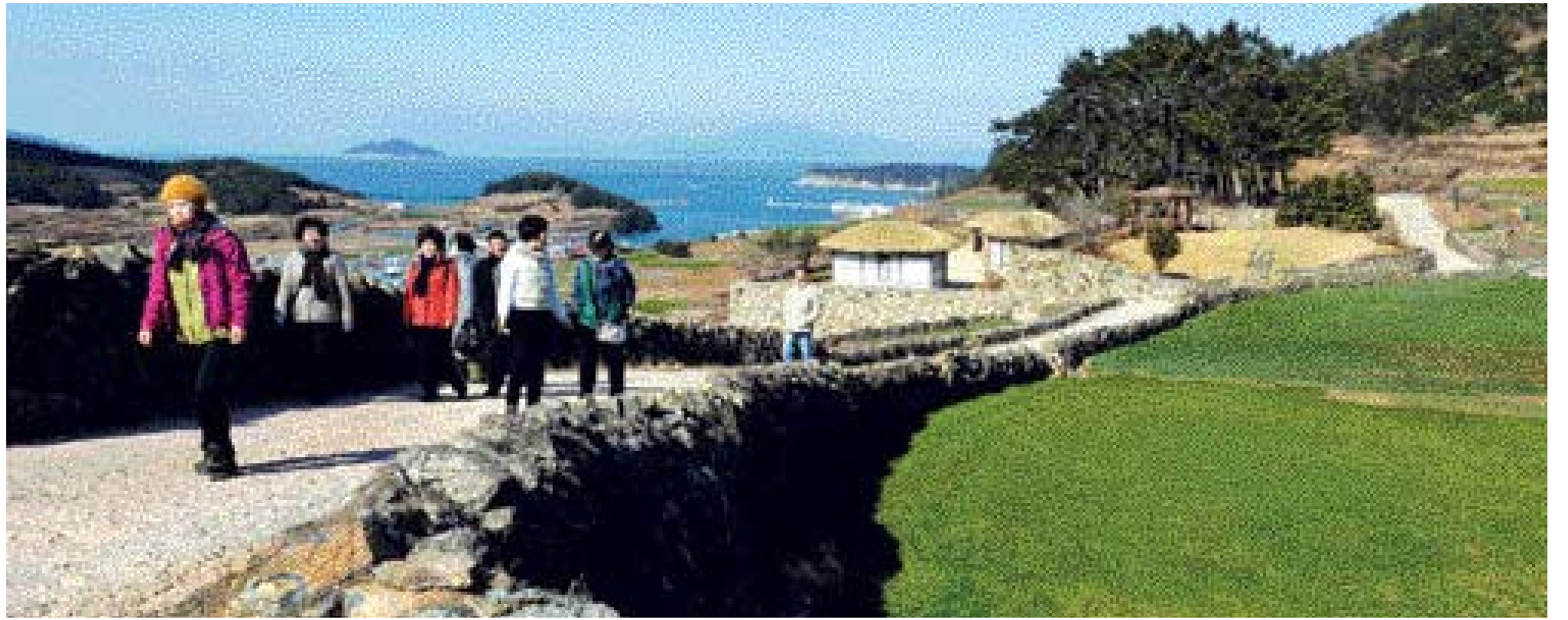


증도·청산도·유치·창평 슬로시티로의 초대

1 들어가며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한 새해, 번잡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진정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는다면 '불편한 여행길로 가는, 느림의 초대'를 받아들여 보면 어떨까.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로 지정된 신안군 증도면과 완도군 청산면, 장흥군 유치면, 담양의 창평면을 찾아 '천천히 사는 삶, 느림의 미학'을 조명해본다.



시간마저 멈춰버린 듯

지난 20일, 영화 '서편제'와 '봄의 왈츠' 촬영지로 이름 높은 완도군 청산면 당리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이 보리밭과 유채밭 사이로 뻗어 있는 소로를 걸으며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슬로시티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즐기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편안하다, 그냥 여기서 살고 싶다

슬로시티(Slow City)란



원래 갖고 있는 고유한 자연환경과 전통, 음식을 보존하면서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마을. 산업화와 대도시화의 영향으로 시간에 쫓기는 물질적인 삶에 대한 반성으로 도입된 '느린 마을 만들기 운동'이 현실로 구체화된 곳이다. 이탈리아어로는 치타슬로(Citta Slow)라고 불린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비롯 12개 국가에서 101개 도시가 가입돼있다.

로고로 사용되는 '마을을 엮고 있는 달팽이'는 오염되지 않은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삶을 상징하는 것으로, 인간과 달팽이가 함께 살아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느린 마을 만들기 운동'은 지난 1999년 이탈리아의 마을인 '그레베인 키안티'에서 처음으로 시작됐다.

한국 슬로시티 추진 과정

- ▲2006년 1월 한국슬로시티추진위원회 결성
- ▲2007년 6월 한국슬로시티추진위 전남 4개지역 현지실사 및 후보지 지정
- ▲2007년 7월 슬로시티 국제연맹에 전남 4개 지역 가입신청서 제출
- ▲2007년 9월 슬로시티 국제연맹 현지 실사
- ▲2007년 12월 슬로시티 국제연맹 총회에서 전남 4개 지역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지정

"느리게 갈수록 더 빠른 거야"

독일 유명작가 미하엘 엔데가 39년전, 시간의 신비에 대해 쓴 책 '모모(MOMO)'에서는 주인공 '모모'가 '하얀색 구역'에서 시간을 훔치는 도둑들에게 쫓기는 장면이 나온다. 모모가 빨리 도망치려 아무리 애를 써도 악당들과의 거리가 좁혀지지, 함께 도망치던 거북 '카시오페이아'가 시간의 비밀을 알려준다. '느리게 갈수록 더 빠르다'고, 천천히 갈수록 더 빨리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모모는 결국 시간도둑의 손아귀에서 벗어난다.

역설적인 시간의 비밀을 통해 느림(Slow)의 미학(美學)을 깨닫게 된 모모가 실존 인물이라면 좋아할 만한 곳이 전남에도 4곳이 있다.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Slow City)로 지정된 신안군 증도와 완도군 청산도, 장흥군 유치·창평 일원, 담양의 창평이 바로 그곳이다.

전통의 맛과 멋, 그리고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시간이 '느긋하게' 흘러가는 이들 슬로시티는 도시화와 산업화라는 그럴싸한 단어로 흘러 '빨리빨리'만을 외치며 살아가는 현대인을 자연스럽게 '슬로 라이프(Life)'로 이끈다.

모든 것이 '느린' 이들 슬로시티에서는 천천히 걷는 '슬로 페이스', 전통·자연식품을 먹는 '슬로 푸드', 자연친화적 주택에서 거주하는 '슬로 하우스'에서부터 느긋하게 늘어가는 '슬로 에이징'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다양한 방식의 '슬로 라이프(Life)'를 체험해볼 수 있다. '느림을



한기하게 걷다 보면 문득, 아득한 과거로 돌아간 듯한 마법을 선사하는 완도군 청산면 상서리의 돌담길.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전통의 멋·맛이 느긋하게 흐르는 곳 느림의 미학을 통해 삶의 질 높여야

통해 삶의 질을 높인다'는 발상의 전환을 구체화시킨 '현실세계의 이상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을의 추억'을 안고 있는 신안군 증도는 자연과 함께 느릿하게 흘러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몸으로 보여준다. 자연거 섬으로 지정된 증도는 외지인들에게 '휴식과 안정' 그 자체다. 국내 최대규모의 태평열전과,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시원 우전해수욕장은 방문객들의 탄성을 자아낸다. 자연이 숨 쉬는 갯벌생태공원과 최고급 휴양시설인 엘도라도리조트도 증도의 자랑이다.

'남도의 가락'이 굽이굽이 서려있는 완도군 청산도는 슬로시티 국제연맹의 로베르

토 안젤루치 회장이 "편안하다. 그냥 이곳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는 정도로 '느림 속의 삶'이 공기 속에 녹아들어있다. 돌담길, 초가 등 예스런 풍경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임권택 감독의 영화 '서편제'의 주요 촬영지가 되기도 했다.

특히 서편제에서 유봉일가가 황룻길을 내려오며 진도아리랑을 부르던 당리마을 촬영장면은 한국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5분30초 동안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은 '진무후무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당리마을은 또 윤석호 감독의 계절시리즈 드라마 마지막 편인 '봄의 왈츠' 촬영지로, 10만 평의 보리밭과 함께 푸

른 바다를 배경으로 한 유채꽃이 장관이다. 구들장 논이나 다랭이는 같은 독특한 농경 문화를 간직하고 있으며, 초분이라는 전통 장례 풍습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느림의 미학'을 체험할 수 있는 장흥군 유치와 창평은 장흥읍 최상류에 자리 잡고 있으며, 청정환경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가운데 하나다. 유치면은 특히 국내 최대 표고버섯 산지인데다, 이곳 반월리에서는 버려지던 표고버섯 자목을 활용, 장수풍뎠이를 사육하면서부터 장수풍뎠이 마을로 알려져 유명세를 타고 있다.

인근 창평면 우산·장항·병동 등 3개 마을로 이뤄진 '우산 슬로월드 지구'는 지렁이를 이용한 친환경농법이 유명하다. 비자나무 숲과 자생 녹차 밭이 있는 가지산과, 송광사의 말사로 우리나라에 선종이 가장 먼저 들어와 정착한 보림사 등도 볼거리다.

유상곡수(流觴曲水-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워 보내며 시를 짓던 풍속)로 이름 높은 담양군 창평의 삼지천 마을은 16세기 초 형성된 전통마을이다. 들란 한가운데 자리한 삼지천 마을의 고풍스러운 전통가옥들과 길이가 무려 3.6km에 이르는 낮은 돌담길 사이를 걷다 보면 어느새 과거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창평 고씨의 집성촌인 이곳은 대대로 후손들이 살아와 전통가옥 13채가 보존될 수 있었으며, 이 가운데 고재선 가족과 고재환 가족은 전통가옥의 구조를 잘 보여준다. 떡갈비와 함께 원조국밥, 창평엿, 한과 등의 먹거리도 유명하다. /홍형기자 redplane@kwangju.co.kr

남성 헤어 기능장 1호 大山프리모남녀기발

타사제품 보상판매

가발

초슬림!!

귀하의 불편한 안경을 놓여주는 생활안경이 되었습니다

리치엔

리치엔 RITCHEN

리치엔 주방기구 광주직영전시장 OPEN

신안점 061-272-2272

광주점 061-272-2272